복합리조트 카지노 급부상… 제주 '촉각'

내년 3~4월 오픈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여부 관심
도, 조례 개정 통해 평가방법 확정… 연내 결론 예상
의회, 용역보고·현장방문 등 실태파악 후 심의 방침

제주 드림타워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 명칭으로 내년 3~4월 그랜드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드림타워의 핵심인 카지노 허가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일 드림타워 사업자인 (주)롯데관광개발 등에 따르면 드림타워는 올해 말 38층(169m)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 준비 기간 2~3개월을 거쳐 2020년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3100명 규모의 인력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랜드 오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호텔과 외국인전용 카지노 오픈을 동시에 한다는 입장이어서 카지노에 대한 여론과 마무리 인테리어 등에 따라 그랜드 오픈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

드림타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설은 카지노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제주롯데카지노 지분을 매입해 드림타워 완공 시점에 맞춰 카지노 영업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면적이 9120㎡로 기존 카지노 영업장 면적보다 4배 이상 확대된다.

카지노 오픈은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드림타워의 카지노는 '뜨거운 감자'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지노 이전허가에 대해 제주도정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에 따라 마련된 평가제도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평가제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용역 결과에 의해 초안이 제시됐다.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평가방법이 확정된다. 이달 중 카지노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연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도의회는 인천 파라다이시티 등 도외 지역과 랜딩카지노 등 도내 카지노를 방문해 실태파악에 나설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카지노 관리감독청 및 카지노 시설 방문을 통해 카지노 관리감독 정책 및 지역사회 영향 실태를 조사했다.

제주도는 도의회 용역결과 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카지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카지노 조례안과 관련 카지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과 달리 도박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분류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긍정적인 결말을 기대하는 눈치다. 개장 3년차를 맞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가 올해부터 국내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매출액 1위에 올라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가 단기간 내 매출 확대가 가능했던 건 복합리조트 효과 때문으로 업계에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급부상하고 있는 점 등이 집중 부각되면서 제주 카지노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벌초로 분주한 제주의 주말 1일 제주시 공설공원묘지와 가족공동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이 벌초를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8년만에 되살린 '환경총량제', 공감대 관건

道 추진계획 수립연구 중간보고회서 잇단 쓴소리
"반성 없인 또 폐기"… 도민 설득 중요성 등 강조

2011년 환경자원통량관리 목표 추립 후 활용이 멈춰있던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이 8년만에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도민 공감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자유실에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며, 수행기간은 12월18일까지다. 과업 대상은 제주도내 전 지역 1850㎢다.

제주도는 2011년 환경자원총량관리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잡고 환경자원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 40.87%를 환경자원총량으로 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내부 참고자료에만 그친 상황이었다.

이번 추진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을 의무화하고 사유지 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는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38억원 투입해 제도화하는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도민 공감대 확보 노력, 실회를 받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등을 요구했다.

강진영 자문위원은 "환경관리총량제가 남발되고 있다. 2011년도 환경자원총량 개념은 정립됐지만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념 이해 ▷구현 방법 ▷운영 방법 등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현원학 자문위원은 "환경자원총량제는 미래후손에게 제주의 자원을 얼만큼 오롯히 넘겨줘야 하는지가 담인 철학적 흐름이 있는 사업"이라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오름, 국립공원, 곶자왈 등은 사유지라는 큰 장벽에 놓여있다. 대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순석 자문위원은 "철저한 반성 없이는 또 만들어도 또 폐기될 것"이라며 신뢰받기 위한 일관성과 추진력을 요구했다.

이성용 자문위원은 "매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도민 설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진은 "공청회 때에는 도민들에게 제도 설명과 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슈 제기, 인식 공유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자원 총량제 목적에 반하는 일들이 사실 없지 않았다"며 "이러한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발전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안돼요"

제주시, 오늘부터 집중단속
포장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10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과대포장 지도·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다량으로 포장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대형마트 및 관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제주시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며,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를 점검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로 많이 판매되는 단위제품 중에 허용되는 포장공간 비율을 보면 주류는 10% 이하, 완구류는 35% 이하이며, 종합제품에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25% 이하로 포장해야 한다. 그리고 의류인 경우 포장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가격 인상, 자원 낭비, 다량의 쓰레기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화려한 포장 제품에 현혹되지 않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귀덕1·와흘리 '행복한 마을' 농림부 개최 경연대회 입선

제주시 귀덕1리와 와흘리가 행복마을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입선을 차지하며 행복한 마을로 뽑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경연대회(콘테스트)'를 개최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20개 우수마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와 조천읍 와흘리는 각각 문화·복지와 경관·환경분야에서 입선을 차지하며 장관상과 함께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문화복지분야의 귀덕1리는 마을주민(출향민 포함)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1계좌당 매달 1만원의 돈을 기부 받아 노인복지를 위한 정기적인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마을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했다.

경관·환경분야의 와흘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주는 선물'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지킴이와 문화지킴이로 나눠 주체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특산물인 메밀을 활용해 와흘리마을만의 브랜드 개발 및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관광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확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2019년 제주 전국 국악대전

제 2 회 제주 전국국악경연대회
제36회 제주 전국민요경창대회

일 시 2019년 9월
28일 10시30분 단심제 (국악경연대회)
29일 10시30분 예선및단심제 /17시 본선 (민요경창대회)
29일 17시30분 축하공연 및 시상식

장 소 제주문예회관

■경연부문
▲ 기악부문 : 일반부, 학생부/ 가야금(병창포함), 거문고, 아쟁, 대금, 피리, 해금(개인 및 단체) * 초등부는 단소 포함
▲ 무용부문 : 일반부, 학생부/ 한국무용(전통무용, 창작무용) * 창작무용은 전통창작무(개인 및 단체)
▲ 타악부문 : 일반부, 학생부/ 사물, 난타, 모듬북, 풍물(개인 및 단체)
▲ 민요부문 : 명창부, 일반부, 학생부(유치부포함)/ 민요전반에 관한 사항 * 단 시조, 가사, 가곡, 판소리, 단가, 가야금병창 등은 제외

■참가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8월 14일(수) ~ 9월 25일(수) 18:00
▲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명함판 사진부착 사)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cafe.daum.net/jejukukak), 국악신문사(www.kukak21.com) 다운로드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방문/우편접수 : 사)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사무국 (632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35 2층)
– 전화/메일접수 : 사무국 전화 : (064–759–3888), 팩스 : (064–724–3347) 이메일: goys52@hanmail.net 팩스접수자는 당일 원본 제출
*유의사항 : 자세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한국국악협회 ·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국악신문사 · JIBS방송국

사)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언제, 어디서나 인재양성에 힘쓰시는 동문 제위의 영예로운
퇴임과 임용, 승진, 전직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정년퇴직: 11명

전 근 무 처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 이 운
구 엄 초 등 학 교	교 장	장 승 련
도 평 초 등 학 교	교 장	홍 영 미
제 주 남 초 등 학 교	교 장	고 성 종
동 광 초 등 학 교	교 장	부 태 준
일 도 초 등 학 교	교 장	이 정 미
하 귀 초 등 학 교	교 장	송 준 의
도 남 초 등 학 교	교 장	조 성 신
아 라 초 등 학 교	교 감	전 혜 순
동 남 초 등 학 교	교 감	채 종 금
제 주 동 초 등 학 교	교 사	현 명 희

2. 명예퇴직(특별승진): 3명

전 근 무 처		성 명
영 평 초 등 학 교	교 장	이 정 란
남 광 초 등 학 교	교장(특별승진)	고 희 숙
백 록 초 등 학 교	수석교사	고 명 숙

3. 교장 중임: 4명

전 보 부 서		성 명
봉 개 초 등 학 교	교 장	유 정 희
의 귀 초 등 학 교	교 장	정 익 권
하 귀 초 등 학 교	교 장	송 만 선
구 엄 초 등 학 교	교 장	문 복 실

4. 승 진 : 20명

▫ 교감 → 교장: 9명

전 보 부 서		성 명
한 천 초 등 학 교	교 장	김 창 희
인 화 초 등 학 교	교 장	김 혜 란
도 평 초 등 학 교	교 장	송 연 옥
표 선 초 등 학 교	교 장	이 화 영
도 남 초 등 학 교	교 장	현 명 신
제 주 북 초 등 학 교	교 장	홍 미 옥
흥 산 초 등 학 교	공모교장	강 경 봉
덕 수 초 등 학 교	공모교장	고 영 리
일 도 초 등 학 교	공모교장	고 종 희

▫ 교사 → 교감: 11명

전 보 부 서		성 명
삼 성 초 등 학 교	교 감	강 연 심
신 제 주 초 등 학 교	교 감	고 길 철
오 라 초 등 학 교	교 감	김 성 철
한 라 초 등 학 교	교 감	김 영 숙
이 도 초 등 학 교	교 감	양 정 인
가 마 초 등 학 교	교 감	고 경 희
중 문 초 등 학 교	교 감	김 승 진
보 성 초 등 학 교	교 감	서 혜 순
수 산 초 등 학 교	교 감	송 성 곤
동 홍 초 등 학 교	교 감	홍 영 순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교 감	장 원 구

5. 전 직: 6명

▫ 교육전문직원 → 교장: 1명

전 보 부 서		성 명
동 광 초 등 학 교	교 장	김 지 혜

▫ 교육전문직원 → 교감: 1명

전 보 부 서		성 명
남 광 초 등 학 교	교 감	강 두 식

▫ 교육전문직원 → 교육전문직원: 1명

전 보 부 서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실장(장학관)	강 순 문

▫ 교장 → 교육전문직원: 1명

전 보 부 서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과장(장학관)	박 희 순

▫ 교감 → 교육전문직원: 1명

전 보 부 서		성 명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장학사	김 용 민

▫ 교사 → 교육전문직원: 1명

전 보 부 서		성 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장학사	차 지 연

6. 전 보: 29명

▫ 교육전문직원 전보: 3명

전 보 부 서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안전복지과	장학사	오 상 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장학사	조 향 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장학사	서 승 필

▫ 교장 전보: 9명

전 보 부 서		성 명
제 주 남 초 등 학 교	교 장	김 진 선
제 주 서 초 등 학 교	교 장	이 종 보
영 평 초 등 학 교	교 장	양 정 숙
삼 화 초 등 학 교	교 장	김 선 홍
한 림 초 등 학 교	교 장	고 범 석
태 흥 초 등 학 교	교 장	강 성 룡
효 돈 초 등 학 교	교 장	현 정 열
서귀중앙초등학교	교 장	강 동 효
동 남 초 등 학 교	교 장	홍 희 정

▫ 교감 전보: 17명

전 보 부 서		성 명
신 촌 초 등 학 교	교 감	강 혜 순
어 도 초 등 학 교	교 감	강 수 연
납 읍 초 등 학 교	교 감	강 연 실
송 당 초 등 학 교	교 감	고 홍 자
장 전 초 등 학 교	교 감	박 문 열
고 산 초 등 학 교	교 감	양 정 윤
세 화 초 등 학 교	교 감	오 승 희
애 월 초 등 학 교	교 감	임 소 양
함 덕 초 등 학 교	교 감	현 금 순
성 읍 초 등 학 교	교 감	이 은 경
강 정 초 등 학 교	교 감	오 순 경
도 순 초 등 학 교	교 감	허 정 인
동 남 초 등 학 교	교 감	현 석 한
서귀중앙초등학교	교 감	진 영 삼
성 산 초 등 학 교	교 감	임 숙 경
예 래 초 등 학 교	교 감	고 옥 순
하 례 초 등 학 교	교 감	강 정 선

7. 신규임용교사: 19명

전 보 부 서	성 명	전 보 부 서	성 명
백록초등학교	강 재 연	제주동초등학교	현 지 원
이도초등학교	김 민 석	무릉초등학교	오 새 별
월랑초등학교	김 범 수	새서귀초등학교	김 지 연
이도초등학교	김 지 은	서귀북초등학교	김 형 준
납읍초등학교	김 차 혜	안덕초등학교	김 유 미
백록초등학교	김 철 훈	중문초등학교	강 혜 진
오라초등학교	김 향 주	토평초등학교	변 석 현
외도초등학교	양 원 영	표선초등학교	현 연 재
신제주초등학교	윤 지 연	하원초등학교	양 은 렬
외도초등학교	현 은 지		

* 본 광고로 개별 축하를 대신합니다. *

제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장 양 승 필 외 회원 일동